

개관 1주년 기념특별전 오사카의 일본화				
2023.01.21 – 2023.04.02				
<p>인사말씀</p> <p>오사카는 상공업 도시로서 계속 발전해 오면서 도쿄와 다르고 교토와도 다른 독자적인 예술 문화를 길러 왔습니다. 근대에 이르러 시민 문화가 토대를 이룬 오사카의 일본화는 에도 시대(1603-1868)의 흐름을 이어가면서도 전통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분방한 표현을 꽃피게 했습니다. 하지만 근대 오사카의 미술을 전문적으로 수집하고 공개하는 미술관이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어 이러한 작품들을 모아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p> <p>본 전람회에서는 메이지 시대(1868-1912)부터 쇼와 시대(1926-1945) 전반기에 걸쳐 오사카에서 제작된 일본화를 중심으로 오사카 나카노시마 미술관이 오랜 세월에 걸쳐 수집한 컬렉션을 일본 전국에서 엄선한 탁월한 작품들과 함께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p> <p>본 전람회에 등장하는 개성적인 화가들 모두가 반드시 오사카 태생은 아닙니다. 오사카에서 성공하려는 목표로 이주해 온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당시 오사카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그림을 원했는지, 화가들은 왜 오사카에 매료되었는지, 오사카 고유의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탄생한 배경과 더불어 그 특색을 찾아봅니다. 본 전람회가 근대 오사카 일본화의 매력과 만나는 자리가 되고, 또 나아가 지금 이곳에 있는 오사카의 문화를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p> <p>마지막으로 본 전람회 개최와 관련해 귀중한 소장품을 출품해 주신 소장자 여러분을 비롯해 아낌없이 협력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주최자</p>				
출품 번호	작가명	표제	제작년	소장 장소
제1장 사람을 그리다: 기타노 쓰네토미와 그 문하생들				
2	기타노 쓰네토미	관세음보살	Late Meiji to early Showa period (19th-20th century)	
3	기타노 쓰네토미	거울 앞에서	1915	Shiga Museum of Art
	<p>살짝 위쪽을 응시하면서 올림머리에 빗을 꼴으려는 여성. 검은 색 원단 기모노에는 자세히 보면 같은 색깔의 파란 파도 무늬가 있고, 옷자락에는 비천상이 그려져 있다. 이 작품의 제작 동기에는 빨간색과 검은색 인상의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지만, 수수한 배경색 속에서 검은색 기모노는 서 있는 여성의 늘씬한 모습을 돋보이게 한다. 전체적으로 억제된 색조 속에서 흰 얼굴과 팔이 두드러지고, 띠의 빨간색은 화면에 화려함을 더해준다. 한 쌍으로 그려진 또 다른 작품 "따뜻한 날"(No.4)은 문부성미술전람회(문전)에 출품되었다.</p>			
4	기타노 쓰네토미	따뜻한 날	1915	Shiga Museum of Art
5	기타노 쓰네토미	바람 부는 날	1917	Hiroshima Prefectural Art Museum
6	기타노 쓰네토미	추억	Early Taisho period (20th century)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7	기타노 쓰네토미	백로 여인	Early Taisho period (20th century)	Kihara Bunko Collection
8	기타노 쓰네토미	새 쫓는 방울	Early Taisho period (20th century)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9	기타노 쓰네토미	단풍놀이	1918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p>쓰네토미가 처음으로 제작한 육곡 병풍 그림이다. 우척은 눈에 편안한 금빛 단풍으로 가득 차 있다. 다와라야 소타쓰(에도 시대 초기의 화가)가 서예가 명필의 밑그림을 그린 일련의 작품들을 떠올리게 한다. 단풍 사이로 손에 그릇을 든 단발머리 소녀 모습이 보인다. 좌측의 여성은 "새 쫓는 방울"(No.8)에 등장하는 요도기미(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측실)와 닮았지만, 이 그림에서는 표정이 부드럽다. 제목을 보면 노 연극이나 지카마쓰 문자에문(에도 시대 가부키 작가)의 "단풍놀이" 대목도 떠오르게 한다. 그 이미지를 겹쳐서 생각해 보면, 이 온순한 여성의 본성은 실제로는 무서운 귀신일지도 모른다.</p>			
10	기타노 쓰네토미	요도기미(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측실)	ca.1920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11	기타노 쓰네토미	자차도노(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측실)	1921	Osaka Prefectural Nakanoshima Library
12	기타노 쓰네토미	나부산 신선	Late Taisho period (20th century)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Kyoto
13	기타노 쓰네토미	여름날 저녁 시원해졌을 때	1926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14	기타노 쓰네토미	샤미센 악기 소리 흥얼거리기	1933	Osaka City Museum of Fine Arts
15	기타노 쓰네토미	호에카고	ca.1931	Osaka Prefectural Nakanoshima Library
	<p>'호에카고'란 오사카에서 1월 10일에 열리는 '도카 에비스 축제' 때 등장하는 가마 행렬을 말한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은 머리에 큼직한 흥백 매화 비녀를 꽂고, 분홍색 매화 무늬의 귀여운 기모노를 입고 있다. 화사하게 차려입고 얼굴에는 흰 화장을 했다. 아랫입술만 붉게 칠한 것을 보면 마이코(게이샤 지망생)일 가능성이 있다. 게이샤가 되기 전인 이 소녀는 아직 풋풋함이 남아 있고, 긴장했는지 얄미운 표정을 짓고 있다. 쓰네토미는 다이쇼 시대(1912-1926) 말기부터 쇼와 시대(1926-1989)에 걸쳐 오사카의 풍속을 소재로 한 '차분하고 고상한' 느낌의 작품들을 계속 발표했다.</p>			
16	기타노 쓰네토미	이토상 고이상	1936	Kyoto City Museum of Art
	<p>오사카의 센바 지역에서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상가 아가씨를 '이토상'이라 부르고, 그녀의 여동생을 의미하는 '작은 이토상'은 줄여서 '고이상'이라 불렀다고 한다. 그림 속 자매는 같은 색의 영경귀로 보이는 그림 무늬 기모노를 입었는데, 바탕색이 한쪽은 검정이고 또 한쪽은 흰색이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계절은 여름이다. 성격이 다른 자매가 칠석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쓰네토미에 따르면 이 작품에는 '옛날 오사카의 센바 시마노우치 지역 근처에서 자주 목격했던 모습이며, 옛날을 떠올리게 하는 기분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p>			
17	기타노 쓰네토미	초여름 비	1938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18	기타노 쓰네토미	마쿠즈안 암자의 렌게쓰(비구니, 시인, 도예가)	1942	Kyoto City Museum of Art
19	히구치 도미마로	선창가 여인숙의 여자들	1921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20	고바야시 가하쿠	도톤보리의 밤	1921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극장에서 운영하는 식당들이 즐비한 도톤보리 지역. 화면상으로는 식당 뒤쪽으로 나니와자 극장 건물의 박공과 망루가 보인다. 망루에는 '쇼치쿠 합명(松竹合名)'(현재의 쇼치쿠)이라는 글자가 보이고, 망루 앞에는 '오이리(大入)'라고 적힌 간판도 보인다. 강 수면에는 당시 오사카의 명물로 유명했던 굴잡이 배에서 새어나오는 등 불이 반짝인다. 오사카에서 태어난 가하쿠는 떠들썩한 이미지가 있는 도톤보리 풍경을 고요한 밤의 한 장면에 담았다.				
21	기타니 지구사	요시자와 아야메(가부키 연극 배우)	1918	
22	기타니 지구사	부러진 바늘을 위한 공양	ca.1915	Ikeda City Museum of History and Folklore
23	난바 슌주	시집가는 날	1924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24	시마 세이엔	마이코(게이샤 지망생)	ca.1916	
25	시마 세이엔	꿈	1917	Akizakura Bunko Collection
26	쓰지 도미요시	작은 새	1923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27	나카무라 데이이	백로 여인	ca.Taisho period (20th century)	
28	나카무라 데이이	제목 소실	1921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정좌를 풀고 사방침에 양쪽 팔꿈치를 얹어 기대고 있는 여성의 얼굴은 애교가 있어 미인이라기보다는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어깨, 허리둘레가 원을 그리도록 구성돼 있다. 게다가 화면의 절반 이상이 그녀의 몸을 감싸는 주홍색 기모노로 채워져 있다. 대담한 구도로 볼 수 있다. 데이이는 다이쇼 8년(1919)에 쓰네토미의 하쿠요샤에 입문했다. 이 작품은 초기의 일본화이지만, 그 개성이 일찍부터 꽃피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데이이는 어렸을 때 입은 큰 화상으로 인해 양손 손가락의 자유를 잃었다. 작품 제작 때는 화필을 양손 사이에 끼우고 그림을 그렸다.				
29	나카무라 데이이	오스기와 오타마(두 명의 여성 예능인)	1923	Shiga Museum of Art
30	나카무라 데이이	오타마(여성 예능인)	1922	Shiga Museum of Art
31	나카무라 데이이	불꽃놀이	Late Taisho period (20th century)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제2장 문화를 그리다: 스가 다테히코, 이쿠타 가초				
32	스가 다테히코	닌토쿠 천황	ca.1902	Tottori Prefectural Museum
33	스가 다테히코	가구라(신에게 올리는 노래와 춤)	1905	Kurayoshi Museum
34	스가 다테히코	풍속화 두루마리(만화그림 제1권)	1907	Osaka Museum of History
35	스가 다테히코	부가쿠 세이카이하	1917	Kurayoshi Museum
"세이카이하"란 부가쿠(전통무악)의 상연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두 무용수가 아름다운 춤사위를 보여준다. "겐지모노가타리"의 '모미지노가'의 한 장면으로, 히카루 겐지와 도노쥬조가 춤추는 곡으로도 알려져 있다. 무용수 외에 '가키시로'라 불리는 사람들도 등장한다. 이 작품에서는 견본리채색에 의한 호화로운 원단에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은 가키시로가 원형으로 배치돼 있고, 그 안쪽에 무용수들이 그려져 있다. 부가쿠(전통무악)에 조예가 깊었던 다테히코가 면밀한 고증을 거친 작품이다. 복장이나 악기 등과 같은 세부까지 꼼꼼히 정성을 들인 흔적이 보인다.				
36	스가 다테히코	간겐 놀잇배	Early Taisho period (20th century)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37	스가 다테히코	용두익수 놀잇배 병풍	Taisho to early Showa period (20th century)	Shitennoji Temple
38	스가 다테히코	쇼토쿠 태자를 위한 법회	Showa period (20th century)	Tottori Prefectural Museum
39	스가 다테히코	일하는 여성들	1921	Kansai University Museum
40	스가 다테히코	나니와 지역 3대 대교	ca.1957	Osaka Art Club Co. Ltd.
41	스가 다테히코	나니와 지역 3대 대교 스케치	ca.1957	Osaka Art Club Co. Ltd.
42	스가 다테히코	나니와 지역의 문인들	ca.1939	Osaka Prefectural Nakanoshima Library
43	스가 다테히코	오사카 호리에	ca.1935	Tottori Prefectural Museum
44	스가 다테히코	비로자나불의 손	1934	Tottori Prefectural Museum
45	스가 다테히코	붉은 태양 아래의 나니와 지역 주민들	1955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46	스가 다테히코	오사카 요쓰바시	1946	Tottori Prefectural Museum
오래 전 나가호리 강과 니시요코보리 강이 교차하는 곳에 입 구(口) 자 모양으로 다리 네 개(요쓰바시)가 놓여 있었다. 이곳은 풍치 좋은 오사카의 명소로 유명했다. 다테히코는 오가는 사람들과 노점의 모습 등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었던 요쓰바시의 모습을 따뜻한 필치로 그렸다. 감주를 훌쩍훌쩍 마시는 가족의 모습도 보인다. 천청봉으로 포목을 나르는 상투 머리의 남성도 있다. 생선가게와 책가게도 있다. 이곳에서는 전부 에도 시대 풍속으로 묘사되어 있다. 다리 입구 쪽에 앉아 돌보기를 손에 든 점쟁이는 다테히코 본인이라고도 전해진다.				
47	스가 다테히코	나니와 지역의 봄날 저녁	1946	Tottori Prefectural Museum
48	스가 다테히코	봄과 가을의 나니와 지역 주민들: 호리에 아미다 연못	1954	Osaka City Museum of Fine Arts

49	스가 다테히코	고즈 신사 가을 풍경	1955	Osaka Museum of History
50	이쿠타 가초	시텐노지 절 법회	1927	Osaka Castle Museum
51	이쿠타 가초	다이가쿠 축제	Showa period (20th century)	Osaka Prefectural Nakanoshima Library
52	이쿠타 가초	스미요시타이사 신사의 모내기 의식	Showa period (20th century)	Osaka Prefectural Nakanoshima Library
53	이쿠타 가초	나니와 지역의 덴진 축제	Showa period (20th century)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54	이쿠타 가초	나니와 지역의 덴진 축제	Showa period (20th century)	Osaka Castle Museum
55	이쿠타 가초	덴진 축제	ca.1935	Osaka Prefectural Nakanoshima Library
<p>일본의 3대 축제 중 하나인 오사카 덴진 축제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축제로, 덴랴쿠 5년(951)에 시작되었다. 가초가 묘사한 이 작품은 도쿠가와 막부 시대 말기의 덴진 축제 모습을 담고 있다. 시내를 흐르는 오카와 강(옛 요도가와 강)의 수면 위는 신위를 모신 배, 화톳불을 피운 배, 작은 북을 실은 축제음악용 배, 구경꾼들의 놀잇배 등 다양한 배들로 가득 차 있다. 배들은 나란히 서서 화면을 비스듬히 흘러가는 것처럼 그려져 있다. 후나토교(신령을 배에 모시고 강이나 바다를 건너는 제사 의식)의 열기는 생동감이 넘친다. 시원한 밤바람이 바람자루를 흔들면서 지나고, 매화꽃 문양의 빨강과 흰색 초롱이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p>				
56	우치다 도요	나니와 지역 덴진 축제 때의 배 행렬	1973	
57	이쿠타 가초	센슈 와키노하마 해변	1936	
<p>마치 그림 두루마리를 펼친 듯한 웅장한 파노라마 그림이다. 마을 사람들이 해변에 대거 집결해 있다. 물가에서는 어부들이 배 근처에서 일하고 있고, 모래사장에서는 축제 준비라도 하듯 어른과 아이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오사카 만의 먼 곳에 보이는 것은 아와지섬일 수도 있겠다. 현재의 오사카부 가이즈카시를 무대로 쇼와 시대(1926-1989) 초기의 생생하고 정겨운 풍속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다. 오사카를 대표하는 여성화가 중 한 명인 이쿠타 가초는 고향 오사카를 사랑했고, 일생에 걸쳐 오사카의 역사와 풍속을 그렸다.</p>				
제3장 새로운 산수를 그리다: 야노 교손과 신남화				
58	야노 교손	새벽의 호수와 산	1913	
59	야노 교손	호수와 산이 있는 풍경	1915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60	야노 교손	앞에서 본 적벽/뒤에서 본 적벽	1915	Osaka Museum of History
61	야노 교손	나부산	1921	
<p>나부산에는 중국 수나라 때 사람 조사웅과 관련된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나부산 매화나무 숲에서 놀다가 미녀를 만난 조사웅은 그녀와 술잔을 주고받다가 취해 잠들어 버렸다. 술에서 깨자 미녀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고, 자신은 매화나무 아래에 있었다. 비로소 조사웅은 그녀가 매화의 요정이었음을 깨달았다. 이러한 고사가 알려져 있다. 이 작품에서는 매화의 요정이 아니라 산을 찾은 남자의 모습만 우척에 그려져 있다. 산 안쪽에 해당하는 좌척에는 매화밭이 펼쳐져 있다. 구도나 기법 등 중국 회화를 강하게 의식한 다이쇼 시대(1912-1926) 교손의 의욕적인 작품이다.</p>				
62	야노 교손	버드나무 그늘에 있는 서당	1919	The Museum of Art, Ehime
63	야노 교손	해질 무렵의 푸른색 어둠	1928	Mr.YANO Ichiro
<p>목동이 소를 타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일몰 무렵 해질녘 정경이다. 연못가 나무들은 붉게 물들고 역새 이삭도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잎이 떨어진 나무도 많아 가을이 깊어졌음을 알 수 있다. 수목과 담채로 산세가 중량감 있게 표현돼 있어 금방이라도 밤이 찾아올 듯한 깊은 산속 느낌을 준다. 중국 회화를 모방하던 작품에서 벗어나 일본적인 새로운 남화를 모색하고 있던 교손은 이 작품을 제9회 제국미술원전람회(제전)에 출품했고 2년 연속으로 특선을 차지했다.</p>				
64	야노 교손	광명	1935	Hirakata City
65	야노 교손	나치 폭포 참배	1943	Osaka City Museum of Fine Arts
<p>130미터가 넘는 낙차가 있는 나치 폭포를 다이내믹한 스케일로 그렸다. 울퉁불퉁한 바위산의 표면, 푸른 나무들로 우거진 숲, 그리고 힘차게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먹물의 농담과 연한 색채로 표현했다. 교손은 대동아전쟁(제2차 세계대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나치 폭포 참배 필승을 기원하며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손을 맡겨' 이 작품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승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작품을 만들려고 했던 교손의 기백에 찬 수작이다.</p>				
66	야노 교손	후도쿠쓰 동굴	1951	Mr.YANO Ichiro
67	야노 교손	고갯길	1959	
68	야노 데쓰잔	만추 풍경	1931	The Museum of Art, Ehime
69	야노 데쓰잔	물가에서 홀로 거문고를 연주하다	1929	The Museum of Art, Ehime
제4장 문인화: 사람들을 사로잡은 중국 취미				
70	다노무라 조쿠뉴	깊은 산속 풍경	1846	Kansai University Library
71	다노무라 조쿠뉴	서왕모(중국 신화의 여신)	1843	
72	다노무라 조쿠뉴	화조도	1847	Shiga Museum of Art
<p>윤곽선은 사용하지 않고 물감의 농담과 번짐만으로 화사한 담홍색 작약꽃을 놀라울 정도로 생생하게 묘사했다. 또한 작약의 잎은 먹선으로 엽맥을 그렸고 채색으로 표현했다. 반면 대나무는 먹으로 확실히 윤곽이 잡혀 있어, 종이의 백색이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양한 기법에 의한 묘사를 시도함과 동시에 중화 취미를 재현한 이 작품을 보면, 젊은 날의 조쿠뉴뿐 아니라 당시 오사카 전체의 중화 문화에 대한 동경이 전해져 온다.</p>				

73	모리 긴세키	나 홀로 즐기는 정원	1884	Mr. K. Collection, Nishinomiya
74	모리 긴세키	쓰키가세 실제 풍경	1882	Mori Family
75	모리 긴세키	산수도	1897	Sen-oku Hakukokan Museum Tokyo
76	모리 긴세키	꽃밭 속에 있는 닭 두 마리	1897	Mr. K. Collection, Nishinomiya
77	하시모토 세이코	매화나무숲의 봄 경치	1893	
78	하시모토 세이코	산수도	1890	
79	가와베 세이란	무릉도원	1908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중국의 고사에 나오는 '무릉도원'이란 이 세상과는 다른 평화로운 이상향이다. 이 작품은 메이지 41년(1908) 세이란이 40대에 접어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작했다. 화면 아래쪽에는 복숭아꽃이 피어 있고, 기분 좋게 차를 즐기는 고결한 인물들의 모습이 보인다. 인물이나 수목에서 볼 수 있는 부드럽고 온정이 느껴지는 정밀한 필치는 세이란의 특징이다. 화면 전체는 세련되면서도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인상으로 완성돼 있다.			
80	다유이노쇼 센리	소나무와 새 두 마리	1879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다(유)이노쇼 센리는 양명학자, 포술가, 기업가 겸 화가였다. 생전에는 오사카에서 유명한 인물이었다. 불로장수의 상징으로 알려진 소나무를 수목의 농담을 구사해 세로로 긴 화면 속에 가득 담았다. 가지에는 통통하게 살찐 새가 편안한 표정으로 머물고 있다. 특히 화면 상부의 솔잎은 먹 색깔을 바꾸면서 꼼꼼하게 그렸다. 거기서 빛이 빠져나오는 모습 또한 훌륭하다.			
81	다유이노쇼 센리	영원한 행복	ca.Early Meiji period (19th century)	
82	다유이노쇼 센리	불로장생	1883	
83	다유이노쇼 센리	소나무와 참나무	ca.Early Meiji period (19th century)	
84	히메지마 지쿠가이	대나무 계곡의 새벽	1897	Sen-oku Hakukokan Museum Tokyo
86	무라타 고코쿠	겨울의 세 친구 송죽매 산수도	1897	
87	무라타 고코쿠	서원아집	1904	Sen-oku Hakukokan Museum Tokyo
	'서원아집'이란 북송 시대에 개최된 저명한 문인들의 모임을 말한다. 예로부터 이 모임은 문인들의 이상향을 표현하는 소재였다. 고코쿠의 글에 따르면 이 그림은 스미토모 가문 제15대 당주였던 스미토모 슌스이를 위해 제작되었다. 또한 그의 자우스야마 본저와 스마의 별저도 서원에 필적하는 문아(문인들의 모임) 장소로 기록돼 있다. 슌스이는 중국 문인 취미에 따라 센차를 즐겨 마셨고, 종종 센차 모임을 개최했다. 이 작품은 고코쿠 본인 스스로가 '일생의 대작'이라 말한 대표작이다.			
88	무라타 고코쿠	화훼와 서재의 과일 그림 두루마리	1902	Sen-oku Hakukokan Museum Tokyo
89	무라타 고코쿠	진경산수화책	1902	Sen-oku Hakukokan Museum Tokyo
90	하타노 가가이	목련과 해당화	1921	Ms.ODAGIRI Mari
91	하타노 가가이	흰새들	1937	Ms.ODAGIRI Mari
92	미즈타 지쿠호	동강의 일출(중국 북서부)	1930	Kyoto City Museum of Art
93	미즈타 지쿠호	나무꾼의 노래	1933	Kyoto City Museum of Art
94	미즈타 지쿠호	이른 봄 깊은 협곡	1943	Osaka City Museum of Fine Arts
95	미요시 아이세키	송림산수/죽림산수/매림산수	1919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제5장 센바파: 상가의 객실을 장식하는 그림				
96	모리 잇포	수초를 캐는 배	Late Edo to early Meiji period (19th century)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97	모리 잇포	비 오는 날 수초를 캐는 배	Late Edo to early Meiji period (19th century)	Osaka Museum of History
98	우에다 고히	호랑이	1902	Museum of Commercial History, Osaka University of Commerce
99	우에다 고히	국화와 대나무	Meiji to early Showa period (19th-20th century)	Mr. K. Collection, Nishinomiya
100	모리 잇포	그림 12점 앨범	Late Edo to early Meiji period (19th century)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101	니시야마 호엔	황금빛 벼 이삭과 새들	Late Edo period (19th century)	
102	니시야마 간에이	아침 파도 위를 나는 학들	Late edo to early Showa period (19th-20th century)	
103	니시야마 간에이	더위를 식히는 뱃놀이	1861	
	여름날 저녁에 더위를 식히고 바람을 쐬기 위해 띄우는 납량선은 에도 시대(1603-1868)부터 쇼와 시대(1926-1989) 초기까지 이어진 오사카의 여름 풍물시이다. 화면 안쪽에는 사람들이 오가는 나니와 다리가 보이고, 그 아래로 많은 놀잇배들이 쏟아져 나와 있는 모습이 먹물로 흑백으로 그려져 있다. 한편, 화면 앞쪽의 놀잇배는 채색이 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물 위로 바람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시원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일본 고유의 정형시 하이쿠가 곁들여져 있다.			

104	니시야마 호엔 / 니시야마 간에이	꽃과 새, 물고기가 있는 그림	Late Edo period (19th century)	
105	니시야마 간에이	나니와 지역의 옛 명승지	ca.Meiji period (19th-20th century)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106	니시야마 간에이	오사카 명산물 그림	Late Edo to Meiji period (19th-20th century)	Osaka Museum of History
107	와타나베 쇼에키	교토 풍경	Late Edo to Meiji period (19th-20th century)	
108	나카가와 와도 외	뷰티 컬렉션	1916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109	후카다 조쿠조	봄과 가을의 꽃과 새들	Meiji period (19th-20th century)	Sen-oku Hakukokan Museum Tokyo
110	후카다 조쿠조	물가 갈대숲의 기러기와 눈 내리는 선창	Meiji to Showa period (19th-20th century)	Kansai University Library
111	후카다 조쿠조	늘어진 벚나무 가지와 원숭이	1893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112	후카다 조쿠조	물에서 헤엄치는 잉어	1913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113	후카다 조쿠조	거친 물가와 도미	1934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흰 파도가 갯바위에 부딪치는 험한 날씨 속에 잔잔한 바닷속을 헤엄치는 도미 세 마리를 그렸다. 오른쪽을 보고 있는, 유난히 크게 그려진 도미는 확실한 사생을 바탕으로 힘차게 표현돼 마치 수족관에서 물고기를 보고 있는 듯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조쿠조는 '바닷물고기 그림이 특히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한 조쿠조가 그린 혼신의 작품이다. 필요 이상으로 다 그리지 않고 여백을 잘 이용해 깔끔한 작품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센바파의 특징이기도 하다.			
114	히라이 조쿠스이	매화와 공작	1904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암수 공작을 그린 이 작품은 메이지 37년(1904) 세인트루이스 만국박람회에 출품돼 은메달을 받았다. 정성스럽게 칠해진 금색 바탕 위에 화려하게 꽃을 피운 매화나무와 암수 한 쌍의 공작이 섬세한 터치로 그려져 있다. 나무 위에 있는 수컷은 길고 호화로운 꼬리날개를 나무와 교차하듯 오른쪽 아래로 뻗으며 날개를 펴고 당당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공작 그림에 특히 뛰어났던 조쿠스이 혼신의 작품이다.			
115	히라이 조쿠스이	눈폭풍 속의 사나운 독수리	1902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116	니와야마 고엔	흰기러기와 맨드라미	1921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117	니와야마 고엔	겹벚꽃과 다섯 마리 참새	Late Meiji to early Showa period (19th-20th century)	Osaka City Museum of Fine Arts
118	스마 다이사이	하이쿠 화첩	Showa period (20th century)	Yuki Museum of Art
119	스마 다이사이	신선한 채소	1914-1926	
	새봄의 광대나물, 별꽃, 머위, 고추냉이로 시작해 여름의 가지와 오이, 가을의 송이버섯과 감, 겨울의 유자와 순무 등 30종이 넘는 채소가 거의 제철이 되는 사계절 순서로 배치돼 있다. 세련된 필치와 은근한 색채로 채소를 생생하게 그렸다. 상하 두루마리 각각에 5면씩 넣어 총 12미터가 넘는 긴 두루마리로 제작돼 있다. 미식가이기도 했던 다이사이가 심혈을 기울여 그린 역작이다.			
120	고이 긴스이	만물고기	Meiji to Taisho period (19th-20th century)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121	다케베 하쿠호	요시노산 귀갓길	Meiji to early Showa period (19th-20th century)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122	다케베 하쿠호	비 오는 날 계곡을 지나는 배	Meiji to early Showa period (19th-20th century)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123	다케베 하쿠호	정박한 배	Meiji to early Showa period (19th-20th century)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124	다케베 하쿠호	눈 속의 귀갓길	Meiji to early Showa period (19th-20th century)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125	다케베 하쿠호	나니와 지역 옛 명승지	Meiji to early Showa period (19th-20th century)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126	다케베 하쿠호 / 다케베 슈케이	3개 대도시 명소의 눈, 달, 꽃 진경	1920	
제6장 새로운 표현의 탐구와 여성화가의 도약				
127	우에시마 호잔	나무 그늘 아래에서 노는 미인들	1909	Chikkyo Art Museum, Kasaoka
128	우에시마 호잔	종규(중국 도교의 신)	1912	
129	우에시마 호잔	황제 조부의 초상	Meiji to Taisho period (19th-20th century)	
130	우에시마 호잔	어람관음	1920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131	기타노 쓰네토미 / 노다 규호 / 우에시마 호잔	국화꽃 동자	ca.Early Taisho period (20th century)	Mr. K. Collection, Nishinomiya
132	노다 규호	아마쿠사 시로	1913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133	노다 규호	물고기잡이 두 장면	1917	Musashino City
	노다 규호는 메이지 40년(1907)부터 다이쇼 5년(1916)까지 오사카를 생활 거점으로 삼고 있었다. 이 작품은 다이쇼 6년(1917)에 개최된 제3회 오사카미술전 출품작이다.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그렸다. 두 장면 중 한쪽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샷갓을 쓴 낚시꾼 두 사람이 대나무숲 속을 걷고 있다. 다른 한쪽 그림에는 강에 뜬 작은 배에 머리에 샷갓을 쓰고 한쪽 어깨를 드러낸 채 허리에 도롱이를 두른 남자와 가마우지 두 마리가 보인다. 우카이(가마우지를 이용한 물고기잡이)는 밤에 이루어지는 어로이지만, 이 그림은 본격적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에 조용히 대기하는 배우들 느낌을 준다.			

134	오카다 셋소	협곡 사이의 온천	1920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135	야마다 슈헤이	석류꽃과 흰앵무새	1920	Sen-oku Hakukokan Museum Tokyo
136	야마다 슈헤이	사계절의 꽃과 새 화첩	1920	Sen-oku Hakukokan Museum Tokyo
137	오카모토 다이코	죽림의 일곱 현자	1931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138	이토 게이사이	사계절의 꽃과 새 화첩	1920	Sen-oku Hakukokan Museum Tokyo
139	야마구치 소헤이	한산과 습득	Taisho to early Showa period (20th century)	Museum of Commercial History, Osaka University of Commerce
140	야마구치 소헤이	인형 분장실	Late Taisho to early Showa period (20th century)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어두컴컴한 방안을 기둥에 놓인 촛불 하나가 희미하게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분라쿠(일본의 전통 인형극)의 인형은 의상을 입히지 않은 상태로 보관한다. 따라서 여기 그려져 있는 것은 전부가 공연 준비를 마친 인형들인 셈이다. 우척 계단 왼쪽 앞에 있는 것은 '겐비시'라는 목 인형이다. 뒤쪽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게이세이', 말하자면 미남과 미녀가 놓여 있다. 오른쪽은 젊은 남자, 좌척 기둥 안쪽은 '시라다유(일본의 전통 인형극 '조루리'의 등장인물)'일 것이다. 보통은 관계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무대 뒤쪽을 묘사했다. 드물고 기발한 작품이다.			
141-1	나카가와 와도	전통무용 무대용 부채(고노이케 가문의 옛 소장품): 제비꽃	1915	Osaka Museum of History
141-2	나카가와 와도	전통무용 무대용 부채(고노이케 가문의 옛 소장품): 담쟁이	1915	Osaka Museum of History
141-3	가와베 세이란	전통무용 무대용 부채(고노이케 가문의 옛 소장품): 하얀 국화	1915	Osaka Museum of History
141-4	구보이 스이토	전통무용 무대용 부채(고노이케 가문의 옛 소장품): 봉황	1915	Osaka Museum of History
141-5	우에시마 호잔	전통무용 무대용 부채(고노이케 가문의 옛 소장품): 하얀 국화	1915	Osaka Museum of History
141-6	우에다 난레이	전통무용 무대용 부채(고노이케 가문의 옛 소장품): 하얀 국화	1915	Osaka Museum of History
141-7	마쓰우라 부세쓰	전통무용 무대용 부채(고노이케 가문의 옛 소장품): 붉은 국화	1915	Osaka Museum of History
141-8	우에다 난레이	전통무용 무대용 부채(고노이케 가문의 옛 소장품): 담쟁이에 작은 새	1915	Osaka Museum of History
141-9	와타나베 쇼에이	전통무용 무대용 부채(고노이케 가문의 옛 소장품): 새	1915	Osaka Museum of History
141-10	스즈키 단엔	전통무용 무대용 부채(고노이케 가문의 옛 소장품): 봉황	1915	Osaka Museum of History
141-11	우에시마 호잔	전통무용 무대용 부채(고노이케 가문의 옛 소장품): 소나무 위에 앉은 학	1915	Osaka Museum of History
141-12	가와베 세이란	전통무용 무대용 부채(고노이케 가문의 옛 소장품): 소나무	1915	Osaka Museum of History
141-13	니와야마 고엔	전통무용 무대용 부채(고노이케 가문의 옛 소장품): 남천 위에 내린 눈	1915	Osaka Museum of History
141-14	마쓰우라 부세쓰	전통무용 무대용 부채(고노이케 가문의 옛 소장품): 미인	1915	Osaka Museum of History
142	스가 다테히코 외	1912년 나니와 신인 18인 합작	1914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143	구보이 스이토	열대지역 나라 그림 두루마리	ca.Early Taisho period (20th century)	
144	가나모리 간요	서양에서 건너온 문물(좌척)	1918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145	후쿠오카 세이란	문수보살	1931	Osaka City Museum of Fine Arts
146	후쿠오카 세이란	달빛 아래의 여자 천재	1932	Osaka City Museum of Fine Arts
147	후쿠오카 세이란	우라시마	Early Showa period (20th century)	
148	아카마쓰 윤레이	여명의 곤고산	1936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곤고산은 오사카부 남동부에서부터 나라현에 걸쳐 있는 산이다. 가마쿠라 시대(1185-1333)에 구스노키 마사시게에 의한 가마쿠라 막부 토벌의 계기가 된 지하야성 전투의 무대로 알려져 있다. 앞쪽에 지하야성을 그려 두고, 멀리 곤고산 산봉오리를 그렸다. 산꼭대기는 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물들고, 그 기슭에는 운해가 펼쳐져 있는 환상적인 광경을 고품질 물감을 사용해 섬세한 필치로 표현하고 있다. 히가시쿠니노미야 나루히코 전하에게 헌상하기 위해 오사카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작한 작품이다.			
149	미후네 쓰나테	서양 명소 화첩	Late Meiji period (19th-20th century)	Mr. K. Collection, Nishinomiya
150	나카무라 데이이	아침	1932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Kyoto
151	나카무라 데이이	여름 2개 장면	1939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152	나카무라 데이이	고양이	1948	Museum of Contemporary Art Tokyo
153	유키마쓰 슌포	헤엄치는 물고기	ca.1945-62	
154	유키마쓰 슌포	가을 서정	ca.1945-62	

155	시마 세이엔	축제 나들이를 위한 옷차림	1913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p>오사카의 여름축제는 현지 신사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중요한 행사이며 가슴 설레는 풍물시이기도 하다. 시내에 있는 규모가 큰 가게는 그 지역 신사의 중요한 신자인 경우가 많다. 그런 가게의 천진난만한 어린 딸들이 가게 앞에 곱게 옷을 차려입고 앉아 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여자아이도 청결하고 귀엽지만, 그려진 네 소녀들의 옷차림을 비교해 보면 잔혹한 빈부격차가 역력하다. 21세의 신진 화가 시마 세이엔은 사회적 격차가 가져오는 소녀들의 심적 동요를 기모노, 신발, 머리장식, 표정 등의 섬세한 차이까지 잘 묘사함으로써 훌륭하게 표현했다.</p>			
156	시마 세이엔	그림자 그림	ca.1919	Kihara Bunko Collection
157	시마 세이엔	무제	1918	Osaka City Museum of Fine Arts
158	기타니 지구사	조루리 배	1926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160	하시모토 하나노	칠석	ca.1930-31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161	미쓰유 지스즈	가을철 어느 하루	1926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p>부용꽃이 핀 마당. 강아지풀을 손에 든 어린 딸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다. 그림에 나온 어린 여자아이는 화가 본인의 어린 시절 모습일까? 병약했던 화가가 그림 하나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을 전폭적으로 응원하면서 소중히 키워준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것이 이 작품이다. 부용잎 하나가 시들어 땅에 떨어져 있다. 비록 계절은 변해도 생명은 이어진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지만, 이 작품을 그린 뒤 몇 달 후 지스즈는 22세의 나이로 병들어 세상을 떠났다.</p>			
162	미쓰유 지스즈	순교자의 딸	1926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163	호시카 유키노	초여름	1940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164	하라다 지사토	봄 들판	Late Taisho to early Showa period (20th century)	
165	하라다 지사토	초봄	Late Taisho to early Showa period (20th century)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166	벳차쿠 쓰키노	편지 심부름	Taisho period (20th century)	
167	다카하시 세이비	가을의 시작	1928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168	요시오카 미에	매장의 초여름	1939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
	<p>길가는 여성은 파마 머리를 머리띠로 묶었다. 새하얀 줄무늬 상의 가슴팍에는 붉은 꽃장식이 보인다. 손에는 빨간 가방이 들려 있다. 피부는 하얗고 눈썹은 잘 다듬어졌다. 입술에는 화사한 핑크 립스틱을 발라 당시 모델이나 여배우 같은 몸치장을 하고 있다. 쇼윈도 안에 있는 마네킹은 녹색 원피스, 등쪽 단추, 펌프스, 녹색 모자 등 복장 전체가 코디되어 있다. 무역항 고베와 가까운 오사카는 섬유산업이 발달한 상업도시로서 패션 유행도 재빨리 도입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p>			
169	요시오카 미에	반딧불이	1939	Nakanoshima Museum of Art, Osaka